

## 사랑하는 수녀님들,

프란치스코교황님의 사도적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139 번에서의 초대를 모든 교회와 함께 용기로 받아들이며 선한목자예수님의 축일을 거행합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실 때 망설이지 않을 은총을 주님께 청합시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적 용기를 청하고, 우리들의 삶을 추억의 박물관이 되게 하는 것을 포기 하도록 용기를 청합시다. 모든 상황에서 성령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깊이 관상 하도록 말갑시다. 이러한 방법으로 교회는 지지 않고 주님의 놀라움을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빠스또렐레로서의 성소를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사목자들과 평신도들에게도 감사드리며 선한목자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소속감을 더욱 잘 나눕시다. 그리고 복자 알베리오네께서 우리의 삶이 사목적 돌봄에 전적으로 소모되도록 권고하셨으니 믿음으로 성령의 은총을 청합시다. “여러분은 여러 차례 “선한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요한 10,11) 좋은 사제처럼 좋은 빠스또렐라도 자신의 사명을 위해 죽어야 합니다. 수고와 고통으로 죽는 것은 하느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날들을 영혼들을 위하여 소모합시다” (PrP III, 1938, p.219).

축일 축하합니다!

총장-아민따 사르미엔토 뿌엔테스 수녀와  
5 대륙에 현존하는 빠스또렐레 수녀들